



신사고
민현식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B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① 음운의 변동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17쪽

- 01 (1) ○ (2) × (3) ○ (4) ○ (5) ×
 02 ㉠: ㉡, ㉢ / ㉣: ㉤, ㉥
 03 (1) 유음화 (2)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의 앞이나 뒤에 오면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04 ㉠: 뒤, ㉡: 앞, ㉢: 뒤
 05 (1) ○ (2) ○ (3) × (4) ○ (5) ○ (6) ×
 06 ㉠ 07 (1) ㉠ (2) ㉡ (3) ㉢ (4) ㉣
 08 ㉠: 받침 'ㄱ' 뒤, ㉡: ㄱ → ㅋ,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 싹쌍
 09 (1) ○ (2) ○ (3) × (4) × (5) ○ (6) ○
 10 ㉠ 11 ㉡ 12 ㄱ+ㅎ
 13 (1) ○ (2) ○ (3) ○ (4) × (5) ○
 14 ㉠ 15 ㉡ 16 -

- 01 (2) 음운의 변동은 여러 단어의 음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5)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 아닌,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뀐 역행적 유음화이다.
- 02 '결눈', '국물'은 받침 'ㅂ'과 'ㄱ'이 [ㅁ], [ㅇ]으로 발음된 것이므로 제18항에 해당되며, '심리', '침략'은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된 것이므로 제19항에 해당된다.
- 04 '볼놀이'와 '찰나'는 'ㄹ' 뒤의 'ㄴ'이 'ㄹ'로 유음화된 것이고, '대관령'은 'ㄹ' 앞의 'ㄴ'이 'ㄹ'로 유음화된 것이다.
- 05 (3)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6)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06 <보기>의 '미달이'는 [미:다지]로 소리 나는데, 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홀이불'은 '홀-'이라는 접두사에 '이불'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홀이불 [홀이불(음절의 끝소리 규칙) → 홀니불('ㄴ' 첨가) → 혼니불(비음화)]
- 오답 해설 ① 굴히다[구티다(축약) → 구치다(구개음화)]
 ② 발입니다[바칩니다]
 ③ 밥술이[밥술이(원소리되기) → 밥쑈치(구개음화)]
 ⑤ 맏이[마지]
- 08 '떡담'은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신고'는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으로 'ㄱ → ㅋ'(㉡)으로 바뀌었다. '떡

을 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다. '실장'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ㅅ'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실장]으로 발음(㉣)해야 한다.

- 09 (3)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난다.
 (4) 단어 첫머리의 'ㄴ'은 'ㄴ'나 받모음 'ㅇ' 앞에서 탈락하고, 'ㄹ'은 만나는 모음에 따라 탈락하거나 'ㄴ'으로 바뀐다.
- 10 ④ '리본(ribbon)'은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외래어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락원 → 낙원
 ② 뇨소 → 요소
 ③ 랑심 → 양심
 ⑤ 리발소 → 이발소
- 11 '늠름(凜凜)'은 '생김새나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하다'의 뜻인 '늠름하다'의 어근으로서 한자어이다. 따라서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늠름'으로 표기해야 한다.
- 12 '술직히[술찌키]'는 받침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한다.
- 13 (4) 11을 보면 음운 변동은 두음 법칙이나 모음 탈락처럼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 14 '씨라'는 '쓰-+-어라'의 형태로서 어간 끝 모음 'ㄴ'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탈락한 경우이므로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축약 현상의 일종인 거센소리되기이다. ① 쌀대[싸타], ② 줄대[조타], ③ 막히다[마키다], ⑤ 악하다[아카다]
- 15 서-+-어서 → 서서('ㄱ' 탈락)
 오답 해설 ① 꼬-+-어진 → 꺼진('ㄴ' 탈락)
 ② 따르-+-아 → 따라('ㄴ' 탈락)
 ③ 쓰-+-어서 → 써서('ㄴ' 탈락)
 ⑤ 모으-+-아 → 모아('ㄴ' 탈락)
- 16 '고파서'는 어간 '고프-'에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ㄴ'이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8쪽

- 01 조음 방법이 아니라 조음 위치이다.
- 02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국뺨]으로 발음된다.
- 05 'ㄹ'은 유음이다. 비음에는 'ㄴ, ㅁ, ㅇ'이 있다.
- 11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넝파라타]에서 보듯이 축약이 일어난다.
- 12 '쫄다'는 [점:따]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3 '웃이'는 [오시]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웃이'에서처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받침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오답 해설 ① 햇볕[햇볕/햇볕] ② 한낮[한낮] ③ 앞거리[앞거리] ④ 웃음]

4 '밭일'에서 'ㅈ'은 앞말의 끝소리가 맞지만 '일'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견디다'에서는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가 아니다.

5 ③~④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축약과 탈락에서는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③ '올다'처럼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특정한 자음이 올 경우에는 '르' 받침이 탈락하는데 그것은 표기에도 반영된다.

6 '건너-+-어서 → 건너서'에서는 모음 'ㅣ'가 탈락된 것이다.

- 오답 해설 ② 피랴다[파랴타]는 'ㅎ'과 'ㅣ'가 축약되어 발음된다(자음 축약). ③ 풀고[노코]는 'ㅎ'과 'ㅣ'가 축약되어 발음된다(자음 축약). ④ '그려'에서는 모음 'ㅣ'와 'ㅣ'가 'ㅣ'로 축약되었다(모음 축약). ⑤ '와서'에서는 모음 'ㅣ'와 'ㅣ'가 'ㅣ'로 축약되었다(모음 축약).

7 ㄷ, '넙죽한'은 먼저 겹받침 'ㅃ' 중 'ㄷ'이 탈락하여 [넙죽한]이 되었다가 두 번째 음절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넙죽한]이 되고, 'ㅣ'와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넙죽한]으로 소리 난다.

- 오답 해설 ① 'ㅈ'은 마찰음이 아니라 파열음이다. ② '밭이랑'은 실질 형태소 '밭'과 실질 형태소 '이랑'이 결합된 단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④ '만형'은 [마형]으로 발음되며 이는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집가야 → 집고-+-아야'로 모음 'ㅣ'가 탈락한 것이다.

8 '여자'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 표기에 반영되었고, '씨라'는 모음 'ㅣ'가 탈락하여 표기에 반영되었다.

- 오답 해설 ① '솔이[소치]'는 구개음화가, '축하[추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둘 다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② '내일'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 표기에 반영되었으나 '권력[꺄력]'은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집가'는 모음 'ㅣ'가 탈락하여 표기에 반영되었으나 '선릉[실릉]'은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④ '노인'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 표기에 반영되었으나 '갈등[갈등]'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9 ⑥의 '낱아'는 [나아]로 발음되므로 발음상으로는 'ㅎ'이 탈락했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10 '막-+-아서'에서는 'ㅣ'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11 '뿔마루'는 [뿔:마루] → [뿔:마루]와 같이 발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꽃망울'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오답 해설 ① '내복약'은 [내:복약] → [내:복약]과 같이 발음되며 'ㅣ'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홀이불'은 [홀이불] → [홀니불] → [훈니불]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ㅣ'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③ '눈요기'는 [눈요기]로 발음되며 'ㅣ' 첨가만 일어난다. ④ '식용유'는 [시공유] → [시공뉴]와 같이 발음되며 연음된 후 'ㅣ' 첨가가 일어난다.

12 ㉠ '알약'은 [알약] → [알략]으로 발음되며 'ㅣ'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총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밭다'는 [밭:다] → [밭:따]로 발음되며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ㄹ' 탈락(탈락)과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총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밭이랑'은 [밭이랑] → [반니랑] → [반니랑]과 같이 총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며 차례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ㅣ' 첨가(첨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것은 ②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③ ㉠과 ㉡에는 2회, ㉢에는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과 ㉡에는 모두 'ㅣ'이 첨가된다. ⑤ ㉢에서만 'ㄹ' 탈락이 일어난다.

15 모범 답안

'꽃잎'	은	[꽃잎]	→	[꽃닙]	→	[꼰닙]
]	의	음운	변동	과정	을	거친다.
'꽃잎'	이	[꽃잎]	이	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고,	[꽃닙]	이	되는	것
은	'ㅣ'	첨가	이며	[꼰닙]	이	되는
것은	비음화	이다.				

17 모범 답안

'굽다'	를	발음할	때	먼저	자음
단순화	가	적용	되어	[굽다]	로
발음	되며,	그	후에	된소리	되기가
나	[굽다]	가	된다.	그리고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	[굽다]	로	발음
된다.					

18 모범 답안

'뛰어'	는	[뛰어]	로도	발음	되는데,
이	반모음	이	첨가	되어	'-어'
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된
음	변				
등의	유형	은	반모음	첨가	이다.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3~035쪽

- 01 (1) ○ (2) ○ (3) ○ (4) × (5) ○ (6) ×
- 02 ⑤ 03 ㉠: 꽃이, ㉡: 꽃에 04 표준어, 어법
- 05 (1) ○ (2) ○ (3) × (4) ○ (5) ○
- 06 ③ 07 ③ 08 의미, 의도

- 01 (4)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은 본래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그 표기는 본래의 형태대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 02 ‘해도지’는 ‘해돋이’를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발음 그대로 적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장년], ② [국수], ③ [바치다], ④ [히미]로 발음되지만 모두 어법에 맞게 표기했다.
- 03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표기해야 한다.
- 05 (3)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06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개’, ‘신발 한 켤레’라고 표기해야 한다.
- 07 ‘알 듯’에 쓰인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08 ㉠에서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6쪽

- 01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02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 05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말과 띄어 쓴다.
- 08 ‘넘어지다’는 [너머지다]로 소리 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 11 ‘마리’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로 적어야 한다.
- 14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이 맞는 단어로 ‘달맞이’가 맞는 표현이다.
- 15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나와 있는 규칙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38~043쪽

- 1 ③ 2 ① 3 ① 4 ④ 5 ④
- 6 ② 7 ② 8 발이랑 9 ③ 10 ③
-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②

- 16 영훈이가 요리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할 줄은 몰랐다.
- 17 우리 집 강아지는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와서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
- 18 해설 참고

- 1 ③은 한글 맞춤법 제10항으로, 두음 법칙에 따라 적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규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6항이다. ② 한글 맞춤법 제9항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9항이다. ⑤ 한글 맞춤법 제27항이다.
- 2 ‘부엌’은 [부억]으로 소리 나므로 음절의 끝소리인 ‘ㄱ’이 대표음인 [ㅡ]으로 소리가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유음화 ③ 사잇소리 현상 ④ 비음화 ⑤ 된소리되기
- 3 앞뒤 문맥상 ㉠에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그 표기는 ‘앞’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4 ‘-던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인 ‘로써’로 쓸 경우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② ‘달했다’는 ‘달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하’가 붙은 동사의 과거형으로, 맞춤법에 맞게 쓰였다.
③ ‘절이다’는 ‘절다’의 자동사로서 ‘생선이나 아채 따위를 간이 들거나 숨이 죽도록 소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귀걸이’는 ‘귓볼에 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가 모두 표준어이다.
- 5 ‘함께’의 뜻을 가진 ‘같이’는 부사에 해당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① 화가 날 만하다. → ‘날’이 관형어이고 ‘만’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비가 온 듯하다. → ‘온’이 관형어이고 ‘듯’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밥은 커녕 빵도 못 먹었다. → ‘은’이 보조사이고 ‘커녕’도 보조사이므로 보조사끼리는 붙여 쓴다.
⑤ 가 본 데가 어디였는지 모른다. → ‘본’이 관형어이고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6 ‘높이’는 ‘높다’의 어간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지만, ‘집집’은 어간이 아니라 명사로서 뒤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③ ‘급히’는 ‘-하다’가 붙은 어근 ‘급-’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고,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졸쌀’은 ‘조’와 ‘쌀’이 합성어를 이루면서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머리카락’은 ‘머리’와 ‘가락’이 합성어를 이루면서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6~061쪽

1 ② 2 ④ 3 ④ 4 ⑤ 5 ④

6 소연은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7 영호와 윤석은 서로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 8 ②

9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자.

10 ⑤ 11 ④ 12 ④ 13 해설 참고

1 3문단에서 성별에 따라서 어휘나 말투 등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세대 간 선호하는 화제나 어휘, 표현이 다르므로 청소년층과 성인층의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르다.

2 ㄱ. 5문단에서 언어적 민감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ㄴ. 1문단과 5문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에 스스로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ㄷ. 5~7문단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ㄴ. 대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②는 기질, 성향, 성장 과정을 포함하는 특성이므로 '개인적 특성'이고 ④는 성인층, 청소년층, 남성, 여성, 지역 안에서 가지는 특성이므로 '집단적 특성'이다.

4 지역 방언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다르므로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기>에서는 방언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③ 의사들이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 방언이다.

5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오답 해설 ② 많은 사람들과의 듣기·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이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나)는 언어적 민감성의 개념과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0 '지사'나 '일상생활'은 듣고 말하는 내용이므로 ⑤가 적절하다.

11 당시 사회는 양반과 평민이라는 계층적인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평민인 농부는 높임 표현을, 신분이 높은 이도령은 낮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도령은 계층적 특성이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도령은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을 취한 것이다.

12 '한 농부'는 비렁뱅이처럼 보이는 이 도령이 농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다.

13 모범 답안

<	보	기	>	는	각	각	특	정	한	집	단	에	서	사
용	하	는	말	이	다	.	이	러	한	말	하	기	방	식
그	집	단	내	에	서	의	사	소	통	의	효	율	성	을
높	이	고	,	구	성	원	간	의	친	밀	감	을	형	성
는	역	할	을	한	다	.	그	러	나	집	단	의	폐	쇄
성	을	드	러	내	기	때	문	에	그	집	단	에	속	하
지	않	은	사	람	과	는	의	사	소	통	이	어	렵	고
소	외	감	을	주	기	도	한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62~067쪽

1 ② 2 ③ 3 ② 4 사회 방언 5 ①

6 ⑤ 7 ③ 8 ⑤

9 사적인 상황이나 지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방언을 사용하고,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1 방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특성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⑤ 세대마다 집단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2 세대에 따른 차이는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오답 해설 ①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듣는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② 성별은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④ 기질이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⑤ 지역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3 <보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가장 적절하다.

5 경민은 은기의 처지에 공감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은기가 화가 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③ 집단적 특성은 세대, 성별, 지역에 따른 특성이므로 이는 경민과 은기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6 은기는 감정을 소통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경민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

7 기질과 성향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고, 성별, 지역, 세대는 같은 특성을 그 집단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특성이다.

8 영호와 윤석은 같은 집단에 속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⑤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④ 영호와 윤석의 성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10 모범 답안

<	보	기	2	>	를	보	면,	,	이	도	령	이	능
부	에	게	반	말	을	하	고	농	부	는	그	에	존
댓	말	을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	춘
향	전	>	이	쓰	인	시	대	를	고	려	하	면,	양
과	상	민	이	라	는	계	층	의	차	이	가	말	하
방	식	에	영	향	을	준	것	이	다.		따	라	서
것	은	계	층	에	따	라	말	하	기	방	식	의	차
를	드	러	내	는	사	회	방	언	이	라	고	할	수
있	다.												

11 모범 답안

	A	는	성	별	과	같	은	집	단	적	특	성	에	따
라	말	하	기	방	식	이	다	르	다	고	주	장	하	고
있	다.		이	와	달	리	B	의	경	우,	말	하	기	
방	식	은	성	별	과	같	은	집	단	적	특	성	에	따
른	차	이	가	아	니	라	개	인	적	특	성	이	나	상
황	에	따	른	차	이	라	는	견	해	를	제	시	하	고
있	다.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1)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 오주석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3~077쪽

- 01 (1) × (2) ○ (3) ○ (4) ○ (5) ○ (6) ○
- 02 ② 03 ④ 04 ④
- 05 (1) ○ (2) ○ (3) × (4) × (5) ○
- 06 ② 07 ④ 08 ㉠: 효경, ㉡: 옛 사진
- 09 (1) ○ (2) ○ (3) ○ (4) ○ (5) ○ (6) ×
- 10 ③ 11 ③ 12 인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

- 01 (1) 필자는 정면상이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자화상’은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라며 입체감이 표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02 이 글은 대상인 윤두서 ‘자화상’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필자의 의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자화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03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필요한 정보 위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④는 필자의 상상에 해당하므로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읽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③의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의 네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③의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 필자는 ④에서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5 (3) ⑦에 ‘자화상’의 회화 효과가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4) ⑦에서 필자는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06 이 글의 필자는 ‘자화상’을 통해 받게 된 충격적인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07 이 글에서 필자는 '자화상'의 회화 기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1995년 옛 사진을 발견하고 나서 의심이 해소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09 (6) 11에서 필자는 '자화상'이 미완성이지만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자기 성찰의 흔적이 보이는 걸작이라고 했다.
- 10 9에서 옛 사진 속 '자화상'의 특징을 자세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림의 특징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 11 필자가 마지막에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은 윤두서가 걸작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작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결과로 더 이상 손댈 수 없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의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 12 필자는 9에서 옛 사진 속 '자화상'을 보면서 현존하는 '자화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을 꼽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7쪽

- 02 작품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05 얼굴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시선은 측면이 아닌 정면을 향해 있다.
- 08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냈다.
- 10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 14 기존 '자화상'에서는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 15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작이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80~085쪽

1 ④	2 ①	3 ③	4 비평문
5 ③	6 ⑤	7 ④	
8 용력이 남다르고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 냉엄한 성품의 장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9 ③	10 ②	11 ⑤	12 ③
14 (1) 인자함 (2)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 때문이다.			

- 1 이 글의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 2 첫인상은 외적 요소가 더해질 수도 있어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오답 해설 ⑤ 2문단에서 첫인상은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 3 '냉엄하다'는 '태도나 행동이 냉정하고 엄하다.'라는 뜻이다.
- 5 윤두서의 '자화상'은 표구가 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입은 옷, 주위 배경, 장소의 독특한 빛의 흐름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6 ㉠과 <보기>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의 내용을 끌어와 설명하는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7 예술 비평문이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필자(작가)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②, ③ 문학 작품은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한 글이 아니므로 주장 및 근거의 타당성이나 공정성 등을 따져 가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9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옛 사진 속 윤두서의 '자화상'이 "조선 사료집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는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 "효경"에 담긴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④ (비)에서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마찬가지로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걸작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⑤ (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10 유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유단은 동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고 나와 있다.
④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은 걸작이라고 평가된다고 하였다.
- 11 '자화상'과 '노예상'은 모두 미완성작이지만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 12 윤두서의 '자화상'을 미켈란젤로의 '노예상'만큼이나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3 ㉡는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근거로 활용한 자료이다. 필자는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 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을 살펴보고 그림의 주인공이 윤두서임을 확인했다. ㉢는 '자화상'의 그림이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으니 작품이 중단되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아닐지 추측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 사료집진속"에 들어 있는 '자화상'의 옛 사진을 확인하고 기존에 봤던 '자화상'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86~091쪽

1 ②	2 ③	3 ④	4 ①
5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이 누가 보더라도 충격적인 것임을 일반화하여 '자화상'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7 해설 참고	8 ⑤	9 ①	10 해설 참고
11 미완성작이다.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12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13 해설 참고		

1 해결 방안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 측이다. 찬성 측은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9 **모범 답안**

반	대	측	의	입	장	을	지	지	한	다	.	왜	냐	하
면	첫	째	,	설탕	세	부	과	는	서	민	의	경	제	
적	부	담	을	키	울	수	있	다	.	둘	째	,	다	
른	나	라	에	서	설탕	세	와	같	은	세	금	을	도	
입	하	였	으	나	모	두	부	작	용	을	겪	었	다	.
셋	째	,	설탕	세	부	과	가	결	과	적	으	로	더	
로	운	성	분	의	소	비	를	증	가	시	킬	수	있	다
는	보	고	서	등	을	블	매	부	작	용	이	크	다	
고	생	각	하	기	때	문	이	다	.					

찬	성	측	의	입	장	을	지	지	한	다	.	왜	냐	하
면	당	분	이	많	은	식	품	의	섭	취	는	비	만	,
당	노	와	같	은	건	강	문	제	를	블	러	일	으	키
때	문	이	다	.	설탕	세	를	부	과	하	면	당	이	함
유	된	식	품	의	소	비	가	줄	어	들	기	때	문	에
질	병	발	생	위	험	이	낮	아	지	고	,	장	기	적
로	는	의	료	비	부	담	이	줄	어	오	히	려	이	익
이	발	생	할	수	있	다	고	생	각	하	기	때	문	이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14~121쪽

1 ④	2 ①	3 ⑤	4 ①	5 ④
6 ④	7 ④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해설 참고	14 해설 참고	

- 1 반대 측은 '문제(찬성 측이 제기한 문제가 증대하지 않음을 주장) → 해결 방안(찬성 측이 주장한 해결 방안은 효과가 없음을 주장) → 이익/비용(찬성 측의 주장은 이익보다 비용이 커서 효용성이 없음을 주장)'에 따라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오답 해설 ① 입증 책임은 찬성 측에게 있다.
 ② 필수 쟁점 언급은 찬성 측에서 해야 한다.
 ③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
 ⑤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③ 반대 측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시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사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
- 3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단계가 아닌 반대 신문에서 설탕세 부과 시 인공 감미료 사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보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 섭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당의 과다 섭취는 질병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내용의 자료로서, 설탕세 부과를 주장하는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반대 측의 주장이다.
 ⑤ 찬성 측만의 주장이다.

5 반대 측은 설탕세를 도입하면 고가의 가당 식품이 저가의 수입 식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 저가의 수입 식품으로 대체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6 당 함유 식품값 인상은 설탕세 부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찬성 측의 주장이다.

7 찬성 측이 ㉠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반대 측에서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쟁점이 아닌 논제만을 소개하고 있다.
 ② ㉠은 찬성 측의 주장이지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다.
 ③ ㉠은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의료비 증가라는 근거이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은 반대 측이 할 주장이다.

8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대로 설탕세가 부과되면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제시하고 있다.

9 (다)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설탕세 부과에 반대하는 반대 측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10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나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11 반박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 및 근거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지 해결 방안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12 토론은 상대측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측과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3 **모범 답안**

설탕	세	의	부	과	가	각	종	질	병	의	해	결	책
이	아	니	라	는	점	과	질	병	의	다	른	원	인
을	들	어	찬	성	측	주	장	을	반	박	하	고	있
다	.	그	리	고	정	부	의	당	류	표	시	제	도
통	한	권	고	의	효	과	를	외	국	의	사	례	와
치	화	된	구	체	적	자	료	를	통	해	강	조	하
있	으	며	,	설탕	세	의	부	과	가	여	러	부	작
을	가	져	올	수	있	다	는	점	을	들	어	찬	성
측	의	주	장	을	반	박	하	고	있	다	.		

14 모범 답안

[찬성 측]

[찬성 측]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보기>의 쟁점이다. 찬성 측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찬성을 주장하면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 호주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측]

[반대 측]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보기>의 쟁점이다. 반대 측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반대를 주장하면서 외국 사례가 우리나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힘 있는 설득

설득하는 글 쓰기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25~127쪽

- 01 (1) ○ (2) ○ (3) × (4) ○ (5) ○
- 02 ① 03 ⑤ 04 ㉔: 자신의 입장, ⑥: 예상 독자
- 05 (1) ○ (2) ○ (3) × (4) ○ (5) ○
- 06 ① 07 ④
- 08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함.

- 01 (3) 2로 보아 주제 분석 시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 02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설득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인지 설득 대상인 독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03 4를 통해 볼 때,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 고려할 점으로 성별, 연령, 직업, 주제와 관련된 지식, 관심, 입장 등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주제에 대한 반박 자료의 유무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04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후에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 05 (3) 7에서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06 이 글에서는 예상 독자 분석과 근거 제시의 예를 들며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07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에 대해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㉔처럼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료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08 6을 보면, 설득하는 글을 쓸 때 타당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02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가치관이 자신과 같을 때에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3 설득하는 글은 대개 '서론-본론-결론'의 삼단 구성을 취한다. '처음-가운데-끝'의 구성은 설명하는 글의 구성이다.
- 07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할 때는 쉬운 질문에서 점차 어려운 질문으로 전개해야 한다.
- 08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할 때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 09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글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3 설득하는 글에는 필자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30~135쪽

- 1 ㉔ 2 ㉔ 3 ㉑ 4 ㉔ 5 ㉔
- 6 ㉑ 7 ㉔ 8 ㉑ 9 ㉑ 10 ㉑
- 11 ㉑ 12 ㉑ 13 주제, 독자
- 14 ㉑: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㉑: 구체적
- 15 설문 조사, 면담 16 해설 참고

- 1 (바)에서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주제와 독자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2 (다)에서 '기부 문화의 활성화'라는 글을 쓰기 위한 예상 독자 분석의 예를 제시하고 있고, (마)에서 근거 마련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3 (가)의 중심 내용은 '주제와 독자 분석의 필요성'이다.
- 4 주제에 대한 관심도는 독자 분석 시 고려할 점에 속한다.
- 5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주제 분석 시 고려할 점에 속한다.
- 6 면접자는 면접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예상 독자가 기부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신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고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기부로 인해 세상이 바뀐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한 글 쓰기 방향 내용이다.
- ② 연예인의 기부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한 글 쓰기 방향 내용이다.
- ③ 기부 문화의 인식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내용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관련한 글 쓰기 방향 내용이다.
- ④ 물질적 기부가 아닌 재능 기부도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관련한 글 쓰기 방향 내용이다.

- 8 선배의 인터뷰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이 아니므로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9 ㉑: 개념 정의, ㉒: 관련 논점, ㉓: 논의의 필요성, ㉔: 자신의 입장
- 10 ㉑는 ㉒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이므로 ㉒의 사례를 참고해서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11 ㉑는 '협조'의 사전적 의미이다. '동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이다.
- 12 음악이 청소년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는 교내 음악 방송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는 모두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16 모범 답안

청 소 년 의	스 마 트 폰	과 의 존	위 험 군	비
울 이	높 아 지 고	있 기	때 문 에	스 마 트 폰
증 득 이	문 제 가	될 수	있 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36~141쪽

- 1 ㉔ 2 ㉑ 3 ㉑ 4 ㉔ 5 ㉑
- 6 ㉑ 7 ㉔ 8 ㉑
- 9 스마트폰 이용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과의 교류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10 해설 참고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13 해설 참고

- 1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근거의 양이 많다고 해서 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 2 '문장 표현이 창의적인가?'는 설득하는 글의 평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주제를 분석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독자의 입장은 주제 분석 내용이 아닌 독자 분석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4 이 글의 필자는 휴대 전화 사용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휴대 전화 중독이라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학생회의 교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제시'가 적절한 개요 내용이다.

6 예상 독자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사춘 형의 인터뷰는 전문적이지 않으며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8 예상 독자는 학생들이므로 교육 선택권과 관련된 교내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모범 답안**

첫	째	,	생활	속	에서	나	와	주	장	이	나
견	해	를	달	리	하	는	사	람	을	만	날
때	문	에	실	득	이	필	요	하	다	.	들
속	에서	상	대	의	등	조	를	구	해	야	할
있	기	때	문	에	실	득	이	필	요	하	다

11 **모범 답안**

타	당	한	근	거	를	마	련	함	으	로	써	얻	을	수
있	는	효	과	는	첫	째	,	글	의	실	득	력	을	높
일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들	째	,	독	자	의
공	감	을	이	끌	어	낼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12 **모범 답안**

	(가)	는	주	장	을	뒷	받	침	하	는	근	거	가
추	상	적	이	고	구	체	적	이	지	않	기	때	문	에	설
득	력	이	떨	어	진	다	.	반	면	에	,	(나)	는
전	문	기	관	의	통	계	자	료	를	들	어	구	체	적	
으	로	근	거	를	제	시	하	고	있	기	때	문	에	(
가)	에	비	해	실	득	력	이	더	높	다	.			

13 **모범 답안**

글	쓰	는	학	생	이	며	예	상	독	자	는	선	생		
님	으	로	실	정	했	으	므	로	예	의	를	갖	추	어	써
야	한	다	.	다	양	한	연	령	대	가	분	포	하	므	로
모	두	를	실	득	할	수	있	는	다	양	한	근	거	를	
제	시	해	야	한	다	.									

1 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42~146쪽

01 ㉠ 02 ㉢ 03 ㉠: 바치랑, ㉡: 반니랑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칠봉은 '맞나'라는 경상도 방언을 알지 못했고, 나정은 칠봉이 그 뜻을 알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겼다.

14 ㉣ 15 해설 참고

01 '줄넘기'는 [줄림끼]로 발음하며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뀐 유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 ① 작년[장년]: ㄱ → ㅇ
 - ③ 국민[궁민]: ㄱ → ㅇ
 - ④ 꽃말[꼰말]: ㅈ(ㄷ) → ㄴ
 - ⑤ 민머느리[만머느리]: ㄷ → ㄴ

02 '탈력'은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탈:력]으로 소리 난다.

- 오답 해설** ①, ④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②, ⑤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0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의 모음 'ㅣ'나 반모음 'ㅚ'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조사 '이랑'이 결합한 ㉠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은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바치랑]으로 소리 나며, 명사가 결합한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반니랑]으로 소리 난다.

04 된소리되기는 받침 'ㄱ, ㄷ, ㅌ'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05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적용되지만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난다.

- 오답 해설** ①, ② '연간'과 '일 년'을 보면 단어의 첫머리에서 반모음 'ㅣ' 앞의 'ㄴ'이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존 명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6 'ㄷ'로 끝나는 어간인 'ㅏ-'에 '-어'가 붙으면 'ㄷ'가 탈락하여 '꺼서'가 된다.

07 소리대로 적는 것은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드러내지만, 본래의 형태가 달라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② 한글 맞춤법은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다.

08 ㉢ '넘어지다[너머지다]', ㉣ '길이[기리]', ㉤ '굵다랗다[굵:파라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⑥ '드러나다[드러나다]', ㉡ '아무튼[아무튼]'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9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므로 '장미꽃밖에'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③ '정태를 만난 지 일 년이 지났다.'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단위 명사 '년'도 띄어 쓴다.

10 한자어는 3에 제시된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에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따라서 ‘전셋방’이 아닌 ‘전세방’으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③ ‘제사+날’은 한자어+순우리말 합성어이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제삿날’로 적는다.

11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 표현, 선호하는 화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오답 해설 ④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언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신과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12 기질, 성향, 성장 과정은 개인적인 요인이며, 지역, 세대, 성별은 집단적 요인이다.

14 늙은 농부는 손길과 도포 자락을 보고 이 도령의 신분을 짐작하고 다른 농부를 말리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신분을 고려한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신분’은 <춘향전>이 쓰일 당시의 사회적인 요인이므로 말하기 방식을 다르게 하는 집단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5 모범 답안

(가) 의 영 호 와			
윤 석 은 서 로 기 질 과			
성 향 이 달 라 의 사 소			
통 에 문 제 가 생 기 고			
있 으 며 , 윤 석 은 영			
호 의 말 에 단 답 형 으			
로 대 답 하 여 오 해 를			
블 러 일 으 키 고 있 다 .			
(나) 의 엄 마 와 소			
연 은 세 대 적 인 차 이			
로 인 해 사 용 하 는			
어 휘 가 다 른 데 , 소			
연 이 엄 마 를 배 려 하			
지 않 고 말 하 고 있			
어 의 사 소 통 에 문 제			
가 생 겼 다 . (가)			
는 개 인 적 요 인 ,			
(나) 는 집 단 적 요			
인 으 로 인 한 의 사 소			
통 문 제 이 며 , 둘			
다 상 대 방 을 배 려 하			
는 태 도 가 부 족 하 다			
는 공 통 점 이 있 다 .			

2회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47~152쪽

01 ⑤	02 ③	03 ⑤	04 해설 참고	05 ②
06 ①	07 ②	08 ㉠: 쟁점, ㉡: 사실 논제, ㉢: 정책 논제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③			

01 (가)에서 ‘자화상’의 첫인상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꼈고, (나)에서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반면 ‘자화상’을 찍은 옛 사진을 보면 몸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나), ② (다), ③ (가), ④ (사)에 제시되어 있다.

02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속 인물이 운두서가 맞는지, 작품의 특징으로 볼 때 혹시 미완성 상태가 아닌지 등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이하곤의 전문과 옛 사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② (나), (바)에서 자세하게 운두서의 ‘자화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마)에서 이하곤의 친문과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의 상반된 인상을 인용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⑤ (나)에서는 얼굴만 있는 ‘자화상’을, (바)에서는 옛 사진 속 ‘자화상’을 서로 대조하며 묘사하고 있다.

03 ㉠의 ‘따다’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의 뜻인데, ㉡의 ‘따다’는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의 뜻이다.

오답 해설 ① ㉠: 태도나 행동이 냉정하고 엄함.

②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③ ㉠: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④ ㉡: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

04 모범 답안

원 작 품 의 구 겨 진			
부 분 을 떠 고 때 를			
빠 는 과 정 에 서 표 면			
을 심 하 게 문 지 름 으			
로 써 원 작 품 이 가 졌			
던 풍 부 한 질 감 ,			
특 히 안 면 의 부 드 러			
운 질 감 이 희 생 되 고			
빠 대 가 되 는 선 적 인			
요 소 만 남 게 되 었 기			
때 문 이 다 .			

05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에는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며 읽기, 글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내면화하며 읽기, 인물이나 필자의 개인적·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감상하며 읽기 등이 있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읽는 태도이다.

③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태도이다.

④, ⑤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읽는 태도이다.

06 반대 측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③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07 반대 1도 보건 복지부에서 권고한 내용과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시행한 내용을 토대로 찬성 1의 입론에 반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은 성인병 발생 위험 수치를, 반대 1은 음로 매출 현황 수치를 각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③ 토론의 논제인 '실랑세를 부각해야 한다'를 명확히 밝혔고,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라고 하며 인원을 안내했다.

④ 개인적인 측면은 건강 증진, 사회적인 측면은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⑤ 반대 1도 당 섭취가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뿐 당 섭취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09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④는 자신의 주장을 모호하지 않게 전달하고 있고, 이유 역시 주장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유에 언급한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제시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 '이유'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③ '근거'에서 활용한 통계 자료로는 '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강화한다고 할 수 없다. 과도한 당 섭취와 의료비 부담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⑤ '이유'에서 당뇨병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하고 있어, 당 섭취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강 위협 요소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근거' 역시 '이유'를 뒷받침하기에는 정보의 객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10 ③은 찬성 측이 아니라 음악 방송 폐지에 반대하는 반대 측에서 제시할 만한 해결 방안이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현재 문제가 중대하며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② 반대 측은 문제가 중대하지 않으며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④ 반대 측은 효과 및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해야 한다.

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11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토의 참여자의 자세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논거가 확실해야 한다.

② 토론 참석자는 쟁점을 확실히 숙지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펼쳐야 한다.

③, ⑤ 신뢰성, 타당성, 동일성 등을 토대로 토론을 경청해야 한다.

12 주제가 '기부 문화의 활성화'이므로 기부가 아닌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주제에 어긋난다. 기부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의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13 주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에 나타나 있다.

③, ⑤ (나)에 나타나 있다.

14 (가)에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다양한 관점의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에 제시된 내용이다.

④ (가)에서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타당한 근거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15 글을 쓸 때는 핵심을 제공하여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②는 간결하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급으로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좋은 진술이 아니다.

- 01 ㉒ 02 ㉑ 03 ㉓
 04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 05 ㉑ 06 ㉓
 07 ㉓ 08 ㉓ 09 ㉔ 10 ㉑
 11 ㉑: 우윳빛√피부가√되기√위해√노력했어요 ㉒: 무√한√개로√못국을√
 몇√그릇이나√만들√수√있을지√모르겠다.
 12 ㉓ 13 ㉔ 14 ㉔ 15 ㉔ 16 ㉑
 17 ㉔
 18 귀와 목, 상체가 생략된 모습이 당시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미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 ㉔
 20 실랑세를 부과해야 한다. 21 ㉔ 22 ㉑ 23 ㉓
 24 ㉔ 25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01 ‘낙원’은 ‘락원’이 두음 법칙에 의해 ‘낙원’으로 변한 예이고, ‘씨라’는 ‘쓰-+-어라 → 씨라’와 같이 모음 ‘ㅡ’가 탈락한 예이다. 이 두 단어 모두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굴이[구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고, ‘섰다[섣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섣 → [선])과 원소리되기(다 → [따])가 일어난 예로,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③ ‘신라[실라]’는 유음화가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담가’는 ‘담그-+-아 → 담가’와 같이 모음 ‘ㅡ’가 탈락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④ ‘연세(年歲)’는 ‘년세’가 두음 법칙에 의해 ‘연세’로 변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법학[버팍]’은 거센소리되기(파 → [ㅍ])가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유행’은 ‘류행’이 두음 법칙에 의해 ‘유행’으로 변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근력[글력]’은 유음화가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02 ‘상견례’는 ‘례’의 ‘ㄹ’이 ‘견’의 ‘ㄴ’ 뒤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상견ㄴ례]가 되는 단어로, 제20항의 ‘다만’ 규정에 속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선릉’은 ‘선’의 받침 ‘ㄴ’이 ‘릉’의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선ㄴ릉]이 되므로 제20항에 해당한다.

③ ‘왕릉’은 ‘왕’의 받침 ‘ㅇ’ 뒤에 ‘ㄹ’이 연결되어 [ㄴ]으로 발음되어 [왕ㄴ릉]이 되므로, 제19항에 해당한다.

④ ‘신림 조합’은 ‘산’의 받침 ‘ㄴ’이 ‘림’의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신ㄴ림조합]이 되므로, 제20항에 해당한다.

⑤ ‘삼림’은 ‘삼’의 받침 ‘ㅁ’ 뒤에 ‘ㄹ’이 연결되어 [ㄴ]으로 발음되어 [삼ㄴ림]이 되므로, 제19항에 해당한다.

03 ‘책꽂이’는 ‘꽂’의 ‘ㄷ’이 연음되어 [책꼬지]로 발음되는 것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의 ‘가을걷이[가을거지]’, ③의 ‘살살이[삼싸치]’, ④의 ‘물히지[무치지]’, ⑤의 ‘붙여이[부쳐어]’는 모두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04 <보기 1>은 된소리되기(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24항의 ‘다만’에서는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기다’는 ‘감-+-기-+-다’로 분석되는데,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05 ‘쓰-+-어서 → 써서’이므로 ‘ㄷ’이 아니라 ‘ㄴ’이 ‘-어서’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건너-+-어서 → 건너서’이므로 똑같은 모음 ‘ㄷ’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 ③ ‘가-+-아서 → 가서’이므로 똑같은 모음 ‘ㄷ’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④ ‘자-+-았-+-다 → 잤다’이므로 똑같은 모음 ‘ㄷ’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⑤ ‘고프-+-아서 → 고파서’이므로 어간 ‘고프-’의 끝소리 ‘ㅌ’이 ‘-아서’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06 ㉑은 교체, ㉒은 축약, ㉓은 탈락, ㉔은 첨가에 해당한다. ‘안지’는 ‘ㄴ’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ㅈ’이 ‘ㅉ’으로 바뀌어 [안:ㅉ]로 발음되므로, 탈락이 아닌 교체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열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바뀌고([열집]), ‘ㅈ’이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바뀌어 [열집]으로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이다.

② ‘않던’은 ‘않’의 끝소리 ‘ㄷ’의 ‘ㅎ’이 뒤에 오는 ‘ㄷ’과 만나 ‘ㅌ’으로 합쳐져 [안뎌]로 발음되므로, 축약의 예이다.

④ ‘날은’은 ‘날’의 끝소리 ‘ㄹ’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앞에서 탈락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탈락의 예이다.

⑤ ‘맨입’은 앞말이 지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첨가의 예이다.

07 ‘똥리다’를 분석하면 ‘똥-+-리-+-다’이며 어근 ‘똥’과 접사 ‘-리-’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㉑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높이’를 분석하면 ‘높-+-이’이며 어근 ‘높’과 접사 ‘-이’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㉒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는 ‘값’과 ‘-지다’가 결합한 말로, 앞말의 원형을 밝혀 ‘값지다’로 표기하였으므로 ㉑에 해당한다.

③ ‘돌아, 돌고’의 기본형은 ‘돌다’인데, ‘돌아, 돌고’는 어간(돌-)과 어미(-아, -고)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㉑에 해당한다.

④ ‘토론(討論)’과 ‘의논(議論)’은 같은 한자어인 ‘論’을 소리 나는 대로 ‘론’과 ‘논’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고 있으므로 ㉑에 해당한다.

08 ‘웃값’은 ‘웃’과 ‘값’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런데 앞 단어가 ‘웃’이므로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웃’의 ‘ㅌ’은 사이시옷이 아니라 ‘웃’이라는 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음운이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답 해설 ① ‘국어과(國語科)’는 ‘국어’와 ‘과’가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한자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② ‘눈곱’은 ‘눈’과 ‘곱’이 결합한 것으로 앞 단어인 ‘눈’이 ‘ㄴ’ 받침으로 끝난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빗물’은 ‘비’와 ‘물’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앞 단어인 ‘비’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시킨다. 또한 뒷말인 ‘물’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2단계]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빗물’이라고 표기한다.

⑤ ‘베갯잇’은 ‘베개’와 ‘잇’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앞 단어인 ‘베개’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시킨다. 또한 뒷말인 ‘잇’의 첫소리 모음인 ‘ㅣ’ 앞에서 ‘ㄴ, ㄷ’ 소리가 덧나므로 [3-3단계]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베갯잇’이라고 표기한다.

09 제5항의 2번 항목을 통해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날 경우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제5항에 따라 ‘몽땅’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① ‘짹짹’의 ‘ㅉ’과 ‘ㅊ’은 한 단어 안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것이므로, 제13항에 따라 ‘짹짹’으로 고쳐야 한다.

② ‘되서’는 어간 ‘되’ 뒤에 어미 ‘-어서’가 어울려 된 것이므로 ‘ㅌ’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는 제35항 [붙임 2]에 따라 ‘돼서’로 고쳐야 한다.

㉠ ‘너머야’는 ‘넘- +-어야 → 넘어야’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5항에 따라 ‘넘어야’로 고쳐야 한다.
 ㉡ ‘쌍용’에서 ‘룡(龍)’은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해당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1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룡’으로 고쳐야 한다.

10 ㉠의 ‘밖에’는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제41항에 따라 ‘안개꽃밖에’로 정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붙여 써야 한다.

㉢ ㉠의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의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 ㉠은 7 연구실’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제43항 다단에 따라 ‘7연구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11 ㉠ ‘우유(牛乳)빛’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사용하여 ‘우윳빛’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돼기’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기’가 결합한 형태이어야 하므로 ‘되기’로 고쳐야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우윳빛V피부가V되기V위해V노력했어요.’가 한글 맞춤법에 맞다. ㉡ ‘무국’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사용하여 ‘뭇국’으로 고쳐야 한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한 개’와 ‘두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의존 명사 ‘수’는 ‘만들’과 띄어 써야 한다. 또한 ‘-르지’는 연결 어미이므로 ‘있을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므로 ‘무V한V개로V뭇국을V몇V그릇이나V만들V수V있을지V모르겠다.’가 한글 맞춤법에 맞다.

12 소연은 소연 또래에서 쓰이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소연과 세대가 다른 엄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소연은 집단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기중심적 태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영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기질인 반면, 윤석은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향이기에 때문에 두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14 나. 상대방의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여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태도이다.

다.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향을 배려하는 태도이다.

라.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성찰하는 태도이다.

오답 해설 가. 선생님의 집단적(세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다.

리. 친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15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뜻한다. 따라서 윤두서의 ‘자화상’은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묘사가 사실적이라고 하였으며, (라)에서 파격적인 구도를 가졌다고 하였다.

16 (라)에서 ㉠과 ㉡은 모두 미완성작이지만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자화상’은 미완성작이지만 완벽하다고 하였으며 ‘노예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고 하였다.

㉢ ‘자화상’의 모델 윤두서가 유명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노예상’의 모델이 유명한 인물은 아니다.

㉣ ‘자화상’은 외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있으나, ‘노예상’은 그러한 흔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 두 작품 모두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7 강하고 날카로운 생김새가 돋보이는 것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자화상’의 모습이다. ㉠에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19 이 글은 정책 토론이다. ㉣는 가치 논제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모두 정책 논제이다.

21 설탕세 부과가 당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방안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에서 설탕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현재 제מוד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래당 기준을 정하여 설탕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한 당 섭취에 따른 비만과 고혈압 발생 위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⑤ 설탕세를 부과하면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설탕세가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시한 보건 복지부의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자료 중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용 자료 역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물음이다.

23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24 독자들이 기부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주제가 아니라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이다.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